

아이를 위한 특별한 날들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일본의 아침 방송에서 어느 신사(神社)의 관리인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치고산(七五三)’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시치고산’이란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로 매년 11월 15일 전후에 신사를 찾아 참배한다. 아직 두 달 넘게 남았는데 벌써 준비를 시작하니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일본인들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한국도 과거 영유아의 생존율이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 아이들을 축하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백일과 돌잔치를 한 것이 지금까지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일본도 같은 이유에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하나들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보다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가족들은 아이를 데리고 신사를 찾아가는 ‘오미야마이리(お宮参り)’를 한다. 이것이 태어난 아이의 첫 외출로 신사에서 아이의 탄생을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그다음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이 된 아이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가 바로 ‘시치고산’이다. 지금은 하나의 행사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연령에 따라 다른 의식이었다. 첫 번째가 어릴 때는 단발머리였다가 3세부터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는 카미오키(髪置き)라는 의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5세가 된 남자 아이가 처음으로 바지 형태의 전통 예복인 ‘하카마’를 입는 ‘하카마기(袴着)’라는 의식으로 과거 무사사회에서 소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의례였다. 세 번째는 7세가 된 여자아이가 아이용 기모노가 아닌 어른처럼 허리에 제대로 된 오비를 매기 시작하는 ‘오비토키(帯解き)’라는 의식이다. 이 또한 소녀에서 숙녀로 성장하는 첫걸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치고산’의 배경에는 과거 어린 아이의 생존 자체가 지금보다 어려웠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 ‘일곱 살까지는 신의 아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즉, 일곱 살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뜻한다. 따라서 ‘시치고산’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사실 여기까지 무사히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례인 것이다. 원래 ‘시치고산’은 11월 15일로 알려져 있는데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그 날짜를 꼭 맞추

기보다는 의미만 살리고 부모의 사정에 맞추어 10월부터 주말을 이용해서 신사를 방문하고 전문 사진관에서 기념 촬영을 한다. 이때 예복을 구입하면 가격이 비싸므로 대여하게 되는데, 이 예복 대여와 사진관 예약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쉽지 않아 두 달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방송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

일본의 아이들 관련 전통에서 흥미로운 점은 남아와 여아의 성장을 각각 축하하는 것이다. ‘시치고산’도 그렇지만, ‘히나마쓰리(ひな祭り)’와 ‘단고노셋쿠(端午の節句)’도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고 있다. 3월 3일 히나마쓰리에는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 하나인형을 장식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5월 5일 단고노셋쿠에는 잉어 모양의 깃발을 장대에 매달아 남자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출세를 기원한다. 1948년부터 5월 5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날이 되었지만, 잉어 장식의 코이노보리(鯉のぼり)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아이들 관련 행사는 화려하고 때로는 유난스럽기까지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아이가 건강하고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만큼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삼성전자 흔든 노조위원장 도덕적 잣대 논란



기 지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잘못된 일이 없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공적인 돈을 다루거나 조직을 대표하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둘러싼 돈 문제를 보면 이 오래된 경구가 떠오른다.

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서는 일부 직원이 실제 주거 조건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거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조합원 상당수가 D S부문 소속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

성전자지부에서도 잡음이 불거졌다. 최승호 위원장은 집합용 조끼 등을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했다. 거래 규모는 약 3억7000만원이다. 최 위원장은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저렴했고, 계약을 통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물론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는지는 중요한 사실관계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억 원대 거래를 진행하면서 다른 업체들과 실질적인 경쟁 절차를 거쳤는지가 더 중요하다.

가격과 품질에서 정찰 경쟁력이 있었다면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하고 그 결과로 낙찰받도록 했으면 됐다.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여지도 크게 줄었을 것이다.

특히 회사의 경영과 처우를 비판하며 ‘공

정’과 ‘양심’을 강조해온 노동조합이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회사에는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조합원들이 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남는다면 구성원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을 삼성전자 DS부문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선택은 개인의 행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조직이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쓰고, 이해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익을 본 것이 없다’는 해명만으로 논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절차였느냐는 점이다. 회사에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했다면 그 잣대는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ysw@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6일 (음 8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집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60년생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72년생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세요. 84년생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세요.



49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1년생 매일 매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73년생 사회적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세요. 85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49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1년생 매일 매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73년생 사회적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세요. 85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51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63년생 산 넘어 또 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군요. 7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87년생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52년생 못했던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64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76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8년생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53년생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65년생 현금에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깊이 생각 후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움 날이 될 것입니다. 89년생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길합니다.



54년생 귀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운아입니다. 66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78년생 용기를 내어 추진하세요. 90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55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8번입니다. 67년생 용기를 내세요. 79년생 모든 일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91년생 다음 달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56년생 중심을 잡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68년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80년생 해외여행을 떠날 좋은 시기입니다. 92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57년생 사람은 때로는 낭만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69년생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81년생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3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58년생 지출을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70년생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82년생 많은 금전을 만지게 됩니다. 94년생 집 매매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면 매우 길합니다.



59년생 동북방이 길방입니다. 71년생 유희에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83년생 어둠을 가도 밝기는 이가 없습니다. 95년생 공익을 위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상회의四季 투랑환주, 은밀한 개혁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순행을 떠난다. 순행을 하는 중에 진시황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는 외부에서 모르게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다. 이들은 장남 부소에게 가짜 칙서를 보내 자살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조종하기 쉬운 막내 호해를 황제로 세운다. 황실이라는 틀은 그대로 두었지만, 핵심 기둥인 후계자를 빼버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기둥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이렇게 골격을 그대로 둔 채, 핵심인 들보와 기둥을 몰래 교체하여 주도권을 빼앗는 계책을 투랑환주(偷梁換柱)라고 한다. 투랑환주는 삼심육계 중 제25계에 해당하는 전략으로 중요한 것을 다룬 것으로 대체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병법이다.

겉모습의 요란함에 차중하지 말고 내실과 핵심 역량을 은밀히 개혁하는 지혜로 재해석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혁신을 시도할 때는 대부분 이름이나 겉껍데기를 바꾸는 데 매달린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새롭게 하면 뭔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혁신은 내부의 핵심 역량, 기술력, 사고방식 등을 새롭게 할 때 일어난다. 이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혁신이 아니다. 제품 판매 방식, 연구 인력, 수익 구조 같은 핵심 포인트를 바꿔야 한다. 식당을 운영한다면 가장 잘 팔리는 메뉴의 구성이나 판매 방식에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직업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업무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핵심을 바꾸는 것이다. 던지는 메시지는 겉을 요란하게 꾸민다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혁신과 변화는 가장 깊은 곳의 기둥을 어떻게 채우고 교체하느냐에 달려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96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0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X3 스도쿠

5 6 7 4 3 2 3 5 8 7 5 8 2 9 5 6

결합형 스도쿠

5 4 7 2 3 2 7 3 1 4 2 3 6 5 2 6 3 2 4 5

컬러 스도쿠 110

9 9 8 6 7 2 1 8 8 7 8 1 2 9 9 6 1 8 6 9 2 9 7 8 2 9 7 1 9 8 6 2 6 2 8 2 9 1 9 7 8 9 8 2 6 8 7 1 2 9 8 6 2 1 9 9 8 2 7 9 7 1 9 2 8 2 6 8 9 2 9 8 7 6 8 2 9 1

문제출제: 손호성

세로운 고난이도의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 코드

할인도서

9 9 8 6 7 2 1 8 8 7 8 1 2 9 9 6 1 8 6 9 2 9 7 8 2 9 7 1 9 8 6 2 6 2 8 2 9 1 9 9 8 2 7 9 7 1 9 2 8 2 6 8 9 2 9 8 7 6 8 2 9 1